



5월에는 시장 대비 은행주 초과상승세 예상

은행 Weekly | 2026.5.4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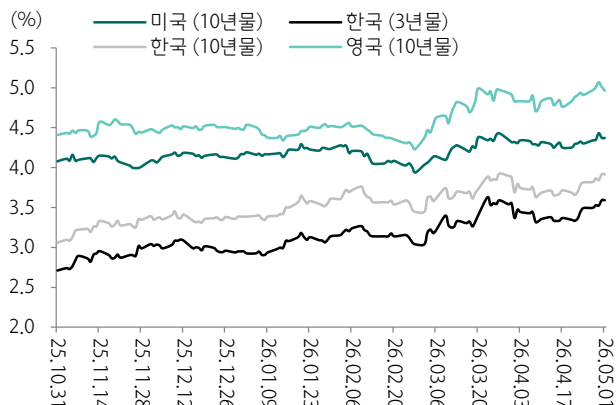
- 올해 1분기에 4대은행의 저금리성예금이 23조원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89%가량은 MMDA와 같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중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신한은행 등과 같이 증권 계열사의 존재감이 큰 금융사 계열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모양새
- 당초 ELS 관련 과징금은 금융위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으로 자본 부담 완화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판단이었지만 2024년부터 반영한 ELS 자율배상의 경우 올해까지 운영리스크 반영시 3년의 정량 기준을 충족하여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
- 예별손해보험(옛 MG손보),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등 주요 보험사 매물이 동시에 시장의 관심권에 들어오면서 인수 후보들의 선택도 복잡해지는 모습. 매각 성패는 단순 인수가격보다 인수후 투입해야 할 자본 규모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
-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금리가 각각 최대 5.20%p, 1.25%p 인하. 특히 민간중금리대출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6·27대책을 적용하지 않는 신상품도 출시될 예정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4월 30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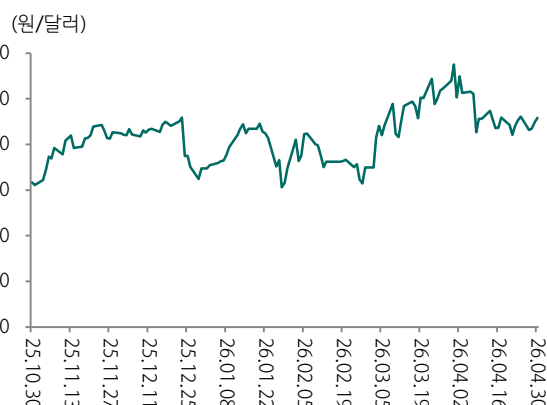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65	8.2	20.2		5,407,467.8	1.9	25.0	26.4	56.6	1,287.7	-180.4	-1,296.5	230.4
은행	0.70	8.18	8.83	0.63	210,492.9	0.5	9.2	15.3	25.6	-42.3	-56.9	-24.1	-15.7
KB 금융	0.90	9.34	9.93	0.76	59,842.5	2.0	10.0	16.5	28.7	-0.4	-3.5	54.1	-52.5
신한지주	0.76	9.49	9.10	0.65	47,418.0	-0.1	10.4	17.4	29.9	3.5	-6.2	6.9	-10.3
우리금융	0.60	7.68	8.25	0.52	24,481.5	-4.9	2.8	9.3	19.1	-14.9	-13.9	-148.1	91.3
하나금융	0.71	8.11	9.19	0.63	35,091.6	3.7	19.3	23.5	35.9	-27.1	-22.0	69.5	-43.0
기업은행	0.48	6.42	7.56	0.55	18,021.8	1.1	2.7	2.7	7.9	7.8	7.8	4.7	-16.4
BNK 금융	0.50	6.71	7.75	0.53	5,812.4	-1.4	2.6	12.1	18.0	3.9	-8.8	-13.4	3.0
이M 금융	0.46	6.24	7.57	0.48	3,067.9	0.0	13.5	25.2	22.8	-2.1	-2.9	10.3	-8.7
JB 금융	0.78	6.89	11.93	1.00	5,139.3	-4.9	-9.5	8.5	6.4	-13.0	-7.5	-8.1	20.9
카카오뱅크	1.63	20.18	8.31	0.72	11,617.9	-3.8	-0.2	3.2	12.7	-7.4	-1.3	-2.5	9.7
삼성카드	0.68	9.58	7.18	1.97	6,175.3	-0.9	-0.9	-6.8	-4.7	-5.0	4.0	2.1	3.4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0.5% 상승에 그쳐 KOSPI 상승률 1.9% 대비 계속 초과하락.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 재개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방산 위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반면 은행주는 초과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 반도체 강세시 은행주 약세, 반도체 약세시 은행주의 상대적 강세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임.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했는데 4월 FOMC 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문구를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3명이나 나오는 등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기류 및 매파적 섹체가 한층 짙어졌기 때문. FOMC 직후 국내 국채금리도 큰폭 상승하고, KOSPI와 KOSDAQ이 오랜만에 상당폭의 조정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헬스케어 종목들의 낙폭이 컸음.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7%로 한주간 6bp 추가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3.88%로 9bp 추가 상승. 국내 국채금리도 글로벌 금리에 연동되며 상승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3.92%로 한주간 10bp 상승했으며, 3년물도 3.60%로 10bp 추가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470원대의 좁은 박스권을 보이다가 1,477.5원으로 마감했고, 한주간 0.7원 상승해 보합 수준을 유지. 지난주 외국인도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1.3조원과 240억원 순매도했고, 국내 기관은 KOSPI를 1.3조원 순매수했지만 은행주는 420억원을 순매도. 외국인의 은행주 순매도는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우리금융에 집중되었으며(우리금융만 1,480억원을 순매도), 그 외 대형은행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된 점이 특징적인 요인이었음
- 전주 특징주는 우리금융과 JB금융.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점이 결국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난주에 각각 4.9%씩 하락해 한주간 주가 하락 폭이 가장 컸음. 반면 하나금융과 KB금융은 각각 3.7%와 2.0% 상승해 상승 폭이 가장 컸는데 양사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하나금융의 경우 비은행 실적 개선 폭이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미진했지만 은행 NIM이 6bp나 개선되고 그룹 대손비용이 대폭 낮아진 점이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분기 은행지주사들의 대손비용은 약 2.5조원으로 YoY 3.9%, QoQ로는 18.8% 감소해 양호한 수준을 기록. 은행 매·상각전 실질 NPL 순증액이 약 3.1조원 수준에 그쳤고, 요주의여신은 전분기대비 6,000여억원 순감했기 때문. 다만 1분기 중 매·상각전 실질 연체는 약 3.9조원 순증해 4분기 순증액 2.9조원보다 더 컸었다는 점에서 은행 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실질 연체 가계 0.5조원, 기업 3.4조원 증가). 은행 평균 표면 연체율도 0.53%로 6bp 상승해 표면 NPL비율 상승 폭 3bp보다 더 커진 상태. 물론 여기에는 일시적 연체 증가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1~2개 분기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룹 대손비용 감소는 은행보다는 주로 비은행 대손비용 감소 폭이 더 크게 작용한 덕분이기 때문. 물론 은행 연체 증가가 아직 NPL 전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고, 연체 증가에도 높은 담보·보증 비중 등으로 인해 대손비용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부담스러운 요인임은 분명. 고유가 지속과 금리 상승 현상이 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우리금융과 BNK금융, JB금융 등 일부 은행들의 실적 부진 현상 완화 예상. 따라서 2분기 은행지주사 추정 순익은 약 7.1조원으로 1분기 6.6조원 대비 더 늘어나 역대 최고치 시현 가능성 높아짐. 증시거래대금이 4월에도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1분기와는 달리 2분기에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여기에 원/달러 환율마저도 1분기말에 비해서는 40원 가량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다 해외장기투자/해외점포이익잉여금 시장리스크 구조적 완화포지션 추가 승인과 운영리스크 RWA 배제 등의 영향으로 실적과 CET 1 비율이 동시에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짐. 대손비용이 당장 의미있게 증가할 공산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펀더멘털 측면의 매력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실적이 거의 모두 발표된 가운데 당장은 은행주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 다만 4월 한달동안에만 은행주가 KOSPI를 약 20%p underperform했고, 시장에 금리와 관련된 우려가 커질 경우 은행주의 방어적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5월에는 시장 대비 은행주의 초과상승세 예상. 펀더멘털 양호한 대형은행지주사 위주의 비중확대를 계속 권고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00,000원), 하나금융(매수/TP 157,000원)

- KB금융은 양호한 실적 시현으로 실적 발표 이후 소폭이나마 외국인 비중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 ELS 과징금 지연 이슈 등도 결국은 우호적 결론이 예상되고,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을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리딩뱅크라는 점에서 비중확대 전략 계속 유효
- 하나금융은 그동안 환율 우려로 약세를 보여 왔는데 주가에 기반영되면서 향후 영향력 제한적일 듯. 2분기 강력한 NIM 상승 폭과 대손비용 감소로 이익가시성이 높아졌고, 2분기 CET 1 비율 상승 폭도 커 1분기 비율 하락에 따른 우려는 완화될 전망

Global Peer Table

(2026년 4월 30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65	8.2	20.2		5,407,467.8	1.9	25.0	26.4	56.6
은행	0.70	8.2	8.8	0.63	210,492.9	0.5	9.2	15.3	25.6
KB금융	0.90	9.3	9.9	0.76	59,842.5	2.0	10.0	16.5	28.7
신한지주	0.76	9.5	9.1	0.65	47,418.0	-0.1	10.4	17.4	29.9
우리금융	0.60	7.7	8.2	0.52	24,481.5	-4.9	2.8	9.3	19.1
하나금융	0.71	8.1	9.2	0.63	35,091.6	3.7	19.3	23.5	35.9
기업은행	0.48	6.4	7.6	0.55	18,021.8	1.1	2.7	2.7	7.9
BNK금융	0.50	6.7	7.7	0.53	5,812.4	-1.4	2.6	12.1	18.0
IM금융	0.46	6.2	7.6	0.48	3,067.9	0.0	13.5	25.2	22.8
JB금융	0.78	6.9	11.9	1.00	5,139.3	-4.9	-9.5	8.5	6.4
카카오뱅크	1.63	20.2	8.3	0.72	11,617.9	-3.8	-0.2	3.2	12.7
삼성카드	0.68	9.6	7.2	1.97	6,175.3	-0.9	-0.9	-6.8	-4.7

미국

S&P 500	4.89	21.8	21.1	5.47	64,453.9	0.9	10.0	4.5	5.6
은행	1.56	12.5	12.4	1.08	2,107.1	1.3	6.4	0.9	-1.8
Wells Fargo	1.44	12.4	12.8	1.00	247.3	1.8	0.3	-10.3	-13.3
JPM	2.32	14.1	17.0	1.27	837.3	1.4	6.3	2.7	-3.0
CITI	1.08	11.7	9.7	0.71	218.5	-0.4	10.5	10.7	9.2
BOA	1.32	11.9	11.7	0.96	377.8	2.3	8.1	0.7	-3.2
US Bancorp	1.40	11.0	13.0	1.17	87.5	1.3	6.7	1.3	5.5
PNC	1.46	11.8	12.7	1.26	88.7	0.4	6.3	-0.4	5.7
BB&T	1.02	11.2	9.4	1.05	63.5	0.4	9.0	0.0	3.5

중국

상해A주지수	1.42	14.4	10.1	1.41	65,384.6	0.5	5.7	-0.1	3.6
은행	0.67	7.3	9.3	0.69	12,166.7	-0.9	-0.1	5.4	-5.0
공상은행	0.64	7.2	9.1	0.67	2,540.6	-1.7	-2.5	2.8	-6.1
건설은행	0.69	7.5	9.4	0.73	2,051.1	2.3	3.1	14.1	7.2
농업은행	0.81	8.4	9.6	0.60	2,372.1	-1.6	3.3	3.0	-9.9
중국은행	0.63	7.6	8.2	0.65	1,740.8	-1.2	-2.0	7.1	0.3
교통은행	0.50	6.4	7.7	0.61	581.0	-2.7	-2.9	2.7	-6.2
초상은행	0.79	6.4	12.7	1.13	978.0	-3.9	-2.7	-1.0	-9.1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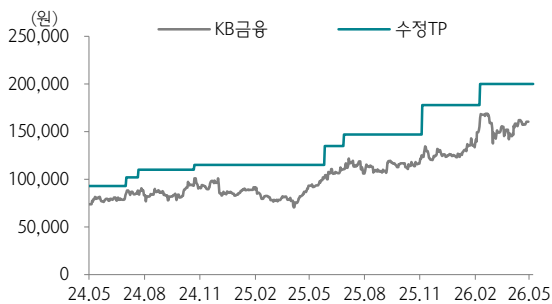
NIKKEI	2.69	23.4	11.4	3.88	957,497.2	-0.3	10.7	12.4	18.2
은행	1.33	13.5	9.8	0.46	116,518.0	3.3	0.5	3.5	15.4
Mitsubishi UHF	1.48	14.2	10.9	0.61	33,205.9	1.5	-0.4	1.3	12.2
Sumitomo Mitsui Financial	1.36	13.4	10.8	0.61	21,208.2	3.6	1.6	2.8	9.9
Mizuho	1.49	13.8	11.4	0.43	16,376.7	4.3	1.4	0.0	17.6
Sumitomo Mitsui Trust	1.13	12.2	9.3	0.43	3,723.3	4.1	2.9	6.3	11.5

유럽

MSCI Europe	2.27	15.4	14.3	1.77	14,751.6	0.2	2.9	1.4	3.1
은행	1.35	10.2	13.3	0.73	1,881.2	1.1	10.4	-1.1	1.9
HSBC	1.69	11.3	15.1	0.84	233.6	2.9	5.7	8.7	15.8
Santander	1.38	10.3	13.6	0.77	152.5	1.7	10.7	-2.6	3.1
BNP Paribas	0.81	7.6	10.8	0.46	98.3	-1.2	10.2	-2.2	10.4
Credit Agricole	0.68	7.2	9.5	0.26	50.2	-3.4	4.2	-9.2	-5.4
Deutsche	0.73	8.0	9.6	0.47	50.6	-1.3	2.8	-20.0	-20.0
Unicredit	1.49	9.2	16.7	1.23	99.0	1.8	10.6	-8.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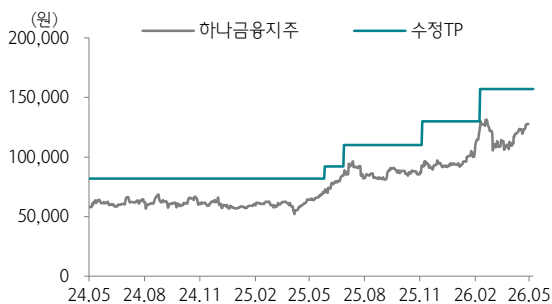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200,00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하나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157,000		
25.11.7	BUY	130,000	-25.41%	-6.00%
25.6.30	BUY	110,000	-20.85%	-12.27%
25.5.29	BUY	92,000	-14.77%	-8.48%
24.3.21	BUY	82,000	-25.94%	-16.1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5월 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조건 비율공시

- 투자건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83%	3.17%	0.00%	100%

* 기준일: 2026년 4월 30일